

군산시, 재생에너지 해법 찾는다

강임준 시장, 시의회 대표단과 해상풍력 허브 덴마크 방문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군산시가 21세기 각광받는 첨단산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6일부터 강임준 군산 시장이 군산시의회 대표단과 함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방향을 찾기 위해 해상풍력의 허브 덴마크를 방문한다.

일찌감치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공감해 지역여건에 맞는 풍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덴마크는 2015년 기준 전체 소비전력의 42%를 풍력으로 생산하는 등 풍력발전 분야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해상풍력발전시장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지를 건설할 때에 계획 수립과 이행 그리고 실제 건설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먼저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와 TSO(Transmission System Operator) 등을 통한 사전 조사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 후보지를 결정할 후 최종적으로 입찰을 통해 해당 후보지를 맡을 기업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해상풍력발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발전단지 건설 기간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된다.

강 시장 일행은 덴마크 그린 홍보

관, DTU RISO 등 주요기관과 연구소, 덴마크 대표 에너지 국영기업인 오스테드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덴마크의 해상풍력 사업 국가정책과 우수사례를 듣고 선진 현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극심한 갈등과 반대를 이겨내고 풍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의 성공사례 청취와 공급증 해결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중인 군산시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덴마크 방문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염원으로 시와 시의

회, 수협, 어촌계, 군산대 등 민·관·학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게 된 보기 드문 현장행보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해역 내 '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 단지 평가기술 개발'과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실증 기술개발' 등 대규모 국가 연구과제를 추진 중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역 내 GW급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지역주도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대체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을 일삼은 '후안무치' 일본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보복 '후안무치' 일본 정부 규탄

군산시의회 성명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을 일삼은 '후안무치' 일본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5일 시의회는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도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심사 회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는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군산시 제조업체 중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약 1.4%(인 20여 개 정도로 대부분 산업기계·부품과 화학 및 수지 등 첨단 소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들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6개월 이상의 소요부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대체가능 품목이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군산시는 시청과 산업단지 내에 피해 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공급 대응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피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영자금과 이차보전액 이차 증액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제약, 익산 제3산업단 확장 이전 투자

2만6548㎡ 부지에 140여억원 투자 60여명 고용 계획

익산시는 5일 시청에서 원광제약(주) 오성배 회장,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원광제약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2만6548㎡ 부지에 140여억원을 투자하고 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제약은 1934년 원광대학교에서 보화당 약업사를 모태로 설립한 이후 80여 년간 한의약을 기반으로 건강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의 이념 아래 명실상부한 제약 종합메이커로서 새롭게 발돋움하여 생약계통의 역제, 환제 및 갑셀제 등 일반의약품, 기능성 식품 및 대체의학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우수 의약품 생산기준인 KGMP 공장 준공을 계기로 청정 시설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보화 경옥고 등 40여 종의 의약품과 보

화옥고, 효삼포르테 등 2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광대 의대와 한의대, 약품연구소 등과 기초 및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시에 기반을 둔 오랜 전통에 빛나는 원광제약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3산업단 이전 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원광제약이 익산시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일본 경제보복 관련 피해최소화 대응체제 돌입

군산시가 일본 아베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체제에 돌입한다.

5일 강임준 시장은 관과소 읍면동장 등 시 간부 전체가 참석하는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군산시 제조업체 중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약 1.4%(인 20여 개 정도로 대부분 산업기계·부품과 화학 및 수지 등 첨단 소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들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6개월 이상의 소요부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대체가능 품목이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군산시는 시청과 산업단지 내에 피해 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공급 대응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피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영자금과 이차보전액 이차 증액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태풍 피해 최소화 비상체제 유지

취약지역 사전통제·행락객안전 관리 등 대책 추진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태풍 프란시스코는 시속 30km안팎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6일 자정 즈음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태풍의 직간접 영향

으로 인한 후유, 강풍, 풍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 행락객안전 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지대 주차장 및 상습침수지역 지하차도의 차량에 대한 통제, 대피, 견인조치와 급경사지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 공사현장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또 산사태와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

하고,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등 배수시설물을 재점검, 연안어선의 대피 명령과 소형어선의 인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사장 주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시설과 안전펜스의 고정상태, 고층의 자재 적재 등 위험요소를 재점검하고 강풍으로 인한 타워 크레인 전도 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태풍 피해 발생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사전대비 총력

익산시는 5일 박철용 부시장 주재로 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 (FRANCISCO) 북상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 관련부서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시청,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군부대 등 13개 협업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대비 중점대처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역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 주택가 침수예방 점검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익산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태풍주의보 발효 시 비상 1단계 상황으로 13개 협업부서와 3개반 93명(시29, 읍면동 58명, 유관기관 6명)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태풍경보 발효 시에는 1/20이상의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